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 경영혁신 및 품질개선 사례 발표회 개최

한 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발전처(처장: 정구영)은 2003년 6월 13일 제1회 경영혁신 경진대회 사업소 예선 및 품질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영혁신 추진반 및 품질분임조 10개 팀이 참가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한 5개 팀이 열띤 경연을 벌여 발전 4파 “정검다리팀”이 “1호기 HP HTR 운전 신뢰도 증진 방안”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처장은 강평을 통해 참여한 모든 팀에게 수고와 찬사를 보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설비의 취약성과 개선사항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경영혁신에 기여하고 원가절감 방안과 본사 경영혁신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 2003년도 환경영대상 수상

한 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는 지난 6월 2일 한명숙 환경부장관, 장태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수상업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기업의 환경영영고취를 위해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3년도 환경영영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환경영영 우수사례발표, 시상식, 기념사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서부발전을 비롯하여 8개 부문 16개 업체가 수상 받았다.

한편,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영철 사장과 조우장 태안화력본부장이 첫 번째로 수상을 받아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기업들의 양적성장에 기업의 가치를 두었으나 급변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국제 사회의 최우선적 규범으로 전향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태안화력본부는 지난 3월 31일 신청하고 본부 환경영영 성과 및 개선실적과 계획 등 환경영영 전반에 대하여 환경영영,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 분야별 교수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팀의 엄정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탁월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날 영예의 대상을 수상 받게 되었으며, 1999년 제1회 수상에 이어 올해 또다



시 대상을 수상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지난 수상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ISO14001 인증, 환경친화 기업 재지정, 환경보고서 발간 등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환경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여기는 서부발전의 기업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 LTTF달성기념 노사한마음 대회 실시

한 국중부발전(주)의 제주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5일 고봉우 발전소장 등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력 1호기 LTTF 달성을 노사한마음 대회’를 한라산 정상에서 무고장 안전기원제로 실시했다.

이날 고봉우 제주화력발전 소장은 LTTF 달성을 노고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LTTF의 연속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으로 노력하여 제주화력이 무고장 운전에서도 중부발전의 최고 발전소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라

산 정상에 참석한 직원은 안전기원제에서 제주화력 전 직원 및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한국남부발전(주)

국내 사상 최저금리로 회사채 발행
국내에서도 4%대의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남부발전(주)는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을 발행금리 4.78%로 5월 30일 발행하였다.

이번에 발행하는 제6회 회사채는 3월초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회사채 기피로 자금조달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후 처음으로 SK글로벌사태 이전 수준으로 발행하였고, 그것도 사상 최저금리수준으로 발행한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회사채 시장은 크게 위축된 가운데 4월 중순 이후 주로 5년채 위주로 발행은 가능했지만, 3년채의 경우 투자자 수요가 많지 않아 높은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2일에 실시한 3년만기 1,000억원 입찰에 3,000억원 이상이 응찰하는 높은 응찰율을 보여, 최근 침체된 회사채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발행금리는 발행일 전일 한국증권업협회 고시시가 평가기준 수익율(AAA)보다

25bp나 낮은 4.78%의 이자율로 결정되었다.

현대중공업(주)

신제품 기술 세미나 개최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는 지난 6월 10일 광주상무지구 내 CENTRAL 호텔에서 중저압차단기, 전동기, 인버터, 디지털보호계전기 신제품 기술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저압차단기, 전동기, 인버터, 디지털보호계전기 등 다양한 신제품, 데모킷, 부품 등 실물이 전시되었으며 디지털보호계전기의 경우 세미나 도중 데모킷을 이용한 시연도 실시되었다.

전라도, 광주지역 대형플랜트, 배전반입체, 부하기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고객 17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고객의 호응에 힘입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용 전기기기에 대한 영업활



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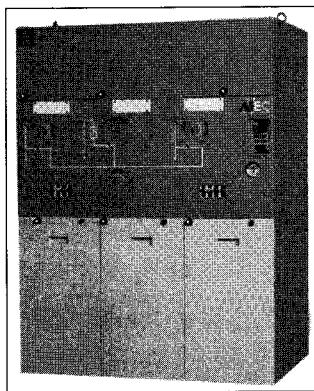
LG산전(주)

유럽형 개폐기 KEMA인증 획득

LG산전(대표: 金正萬)은 최근 중동,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유럽형 배전용 개폐기(RMU; Ring Main Unit)가 해외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KEMA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유럽형 개폐기는 이상전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 측의 부하 기기들을 보호해 주는 제품으로 유럽, 중동, 동남아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LG산전 관계자는 “이번 유럽형 개폐기는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수출에 필요한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동, 동남아 시장의 전력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산전은 중동지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2300만불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며 동남아 지역에서는 약 1200만불 규모의 말레이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전동드릴 신제품 출시

LG 산전은 전동드릴 신제품 2종 (6.5mm드릴, 10mm드릴) 개발을 완료,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동드릴 제품은 목재, 철재 등을 뚫고 스크루 드라이버(Screw Driver)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전동공구이다.

LG산전 관계자는 “전동공구 소비자들은 가벼우면서 힘이 센 제품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의 개발 컨셉도 여기에 맞춰 제품 중량(6.5mm드릴 중량 0.9kg, 10mm드릴 중량 1.2kg)을 기존보다 10~20% 줄이면서 출력(6.5mm드릴 280W, 10mm 드릴 400W)은 16~38%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주)

鄭敬南 사장 취임

한 국전력기술(주)은 지난 5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된 박용택(朴用澤) 사장 후임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추천된 한국전력공사 정경남(鄭敬南, 54) 대외 사업단장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하고, 당일 17:00에 용인 본사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신임 정경남 사장은 서울공대 원자력공학과(학사), 뉴욕공대 원자력공학(석사)을 마쳤으며, 1974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이래 전력산업구조조정 실장과 대외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효성

노틸러스효성 – 미국에서 ATM 기기 인증획득

노 틸러스효성(www.nautilus-hyosung.com)이 미국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제품으로 'UL291'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6월 16일 밝혔다.

'UL291' 인증은 미 보험협회 검사기관이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분야 제품 관련 품질인증으로 노틸러스효성이 이번에 획득한 UL291 레벨 품질인증은 금융 자동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품질인증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제품명: MBS5000)은 은행의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금융자동화시스템이다.

노틸러스효성은 전자, 전파, 누전 등 작동에 해당하는 기본 사항 외에 기기 외부환경, 내부환경에 대한 온도변화 테스트, 외부충격에 15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보안테스트 등을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틸러스효성은 미국의 비금융권 시장에서 지난 '98년부터 ATM 수출을 시작해 현재 약4만대를 판매해 미국 내 시장의 35%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료(주)

梁昌國 사장 취임

한 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梁昌國 사장의 취임식이 지난 6월 10일 전임직원 및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내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梁昌國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도전의 시대인 21세기는 일등 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세계의 핵연료 시장은 굴지의 회사들이 시장선점을 위하여 피나는 쟁탈전과 아울러 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하여 합종연횡으로 사세 확장과 최첨단 기술선점에 전력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고품질 핵연료의 공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인재양성, 최첨단 기술 확보 등 기술개발 박차, 부품 국산화 및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사가 협력으로 공존의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노사가 다같이 힘을 모아 세계 일류회사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